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2. 1.(목) 8:00
담당 부서	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	책임자	과 장 김승태 (044-215-45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상엽 (ksy7715@korea.kr)

추경호 경제부총리, 「중소기업인과의 대화」 개최

-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'22.12.1.(목) 8:00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(「중소기업인과의 대화」)를 개최하였음
- 이번 간담회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음
 -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 건의사항,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

< 「중소기업인과의 대화」 개요 >

- ▶ (일시·장소) 12.1.(목) 08:00~09:30,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
- ▶ (참석자) ①정부 : 경제부총리, 기재부 차관보, 정책조정국장,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
②중소기업계 :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(7명),
중기중앙회 부회장단(5명),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(4명)

※ (붙임)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

-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
 -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,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
- 오늘 간담회는 이달 하순 발표될 2023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열리게 되었음

[최근 경제상황 및 중소기업 여건]

-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·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
- 어제(11.30일)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함
 -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, 10월에는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였으며,
 - 그간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업생산·소매판매도 동반 감소하는 등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소비도 다소 주춤
- 한편, 10월 수출이 24개월만에 감소 전환되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데 이어 곧 발표될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
 - 11월 수출의 감소폭 확대에는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,

- 글로벌 경기 둔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수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임

* 수출(전년동기비): ('22.1/4)**18.4** (2/4)**13.0** (6)**5.3** (7)**8.7** (8)**6.6** (9)**2.3** (10)△5.7 (11.1~20)△16.7
↳ <중소기업> **13.8** **4.2** △3.0 △1.6 **3.3** △0.6 △8.6

[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 요청]

-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, 원료·부품조달 및 생산·수출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

- 특히,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,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

* 중소벤처기업부 공동물류지원사업 수행 물류사 15개社 대상 조사결과(11.24일)

- 이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운송거부를 하고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음
-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, 운송 거부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 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음
-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

- 정부는 지난 9월 초에 민생안정과 기업 활력회복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, 헌법에서 정한 법정 기한이 이제 내일(12.2일)로 다가옴

-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,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공고,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·일자리·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
-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법정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

[그간 중소기업 정책지원 및 향후 정책방향]

- 정부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 지원
 - 그간 국제원자재 등 원재료 가격상승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,
 -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대로,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갖춘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음
 - 여기 계신 기업인들과 김기문 회장님이 큰 역할을 담당하셨다고 생각하며,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납품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
- 또한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,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
 - 개편안은 공제한도 대폭 상향,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, 업종·고용·자산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, 가업승계시 상속·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등을 담고 있으며,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

-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,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길 기대
-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근본적 차원의 혁신성장 지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
- 이를 위해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해소,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, 규제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지속 발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

[인사말씀 마무리]

- 오늘 간담회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, 내년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음